

책과 세계 강의

이 강의노트는 <<책과 세계>>(살림출판사, 2003)를 교재로 2004년 7월 6, 13, 20, 27일, 오후 7-9시, 서울 신촌 커뮤니티 카페 토즈에서 행한 강의의 필사를 정리한 것이다. 최초의 필사는 신기철이 하였으며 강유원이 다시 정리하였다.
2004. 9. 6. <http://armarius.net>

1.

이 책의 비밀을 한가지 공개하겠다.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은 고전 해설서가 아니라 이전에 쓴 <<서양문명의기반>>(도서출판 미토, 2003)을 사상적 측면에서 압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간략한 서양 사상사 또는 지성사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것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디자인에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선 책 날개를 보자. '나는 이 책을 / 관심사와 연구계획' -- 이 부분은 책을 다 쓴 후에 썼다. <<책과 세계>>의 핵심적인 요소는 모두 이 글 안에 다 들어 있다. "그 책들이 어떻게 서로 이어져 있고 대화하고 있는지" -- 이것이 이 책에 담긴 글들의 구조를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내용들은 어디선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 챕터 제목 같은 것도 유심히 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내용도 앞에 나온 것들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게 있다.

"인간의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 세계가 만나는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색하고 정리하여" --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주관적 정신의 표출이 텍스트라면 객관적 세계는 콘텍스트, 그 접점을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면 이것을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는 말이다.

2.

<세계의 근본문제>에 속하는 세 챕터는 4대 문명 발생지 중 중국과 인도를 뺀 것들이다. 히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이를테면 原문명시대(신석기 농업혁명의 직접적 성과 위에 성립된 문명)이다. 여기에 속하는 세 챕터를 읽으면 세계의 근본문제는 다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류사의 근본 문제는 이 시기에 이미 인류에 의해 체험되고 반성적으로 탐구되었다는 말이다.

<인간과 사회> 부분은 고대 문명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 챕터 모두 분량이 원고지 20매씩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원고지 20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세 챕터 말고도 몇 개 더 있다. '단순한 실천', '세속의 재발견', 그리고 <세속세계의 폭력적 완결>에 속하는 네 개의 챕터들. 왜 로마를 고대 세계에 넣지 않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매체(1) - 또다른 컨텍스트. 이 부분은 고대와 이 이후 시기를 나누어 주는 시대 구분용 챕터이다.

로마와 중세가 한 묶음이 되는데 이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시대, 즉 인류가 반성적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았거나 인간을 사상적 탐구의 핵심주체로 삼지 않은 시대에 속한다. 로마와 중세를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이 책의 시대 구분이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상사적임을 뜻한다.

매체(2)는 근대와 이전 시대를 나누기 위한 시대 구분용 챕터이다.

<세속 세계의 폭력적 완결>은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고통스러운 세계이다.

챕터의 제목들을 한번 보자. 첫번째 챕터는 '쓸쓸한 세계'이고 마지막 챕터는 '쓰라린 세계'이다. '쓰라린'이 더 강한 느낌을 준다. 살이 찢어진다. 길가메시가 인간의 운명에 슬퍼하는 것은 쓸쓸한 거다.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쓰라린 세계이다. 이렇게 해서 첫번째 챕터와 마지막 챕터가 서로 상응한다. 이런 방식을 몇 개의 챕터에 사용하였다. 챕터 제목들을 보면 그것이 보인다.

'텍스트에 의한 전통의 전복: 백과전서'와 '텍스트의 힘: 모세5경'이 서로 대응한다. 텍스트가 가진 힘을 알아보자면 모세5경이 가장 강한 예겠지만 그 다음으로 강한 힘이 백과전서다. '일리아스'와 '신국'은 내용상 대응된다. '단순한 실천: 갈리아전기'와 '차가운 현실 법칙: 리바이어던'도 대응된다. '행복한 시대의 징후: 우정론'과 '행복한 날들: 국부론'도 상응한다.

<세속 세계의 폭력적 완결>에 속한 챕터들은 앞에 나오는 모든 챕터들을 집약한 것이다. 내용으로도 그렇고 제목으로도 그렇다. 원문명 시대의 즉자적 정신이 고대문명기의 대자적 정신을 거쳐서 현실에 완전히 파고든 근대에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선행하는 시대가 나중에 나오는 시대에 통일되어 집약된다는 일종의 역사철학적인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전체적으로 순환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아무 데나 펴서 읽어도 된다.

에필로그 끝 문장을 읽고 나면 이 책을 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해 진다. 그러나 서문 첫 문장을 보면 에필로그 끝 문장과 서문의 첫 문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문과 에필로그를 하나로 작성한 뒤 적절한 분량으로 잘라서 앞뒤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써 이 책이 일종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 책을 두 달 동안 썼는데 그 중 이러한 구조화 작업에만 2주를 소요했다. 200자 원고지 300매로써 자기 완결적인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무척 즐거운 일이기도 했다.

3.

인문학은 인간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본 성과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글을 쓸 때에는 항상 첫 머리에 자신이 인간 존재를 보는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책을 읽든 그 저자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욕망하는 존재로 본다. 이것은 인간을 매우 명확하게 갈라버리는 것이다. 돈 되는 놈, 안 되는 놈으로. 예를 들어 칼 마르크스에 대해 공부한다면 마르크스가 인간을 보는 관점부터 알아야 한다. 그게 인문학도로서 마르크스를 읽는 출발점이다.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 개념 등을 인문학적으로 따진 다음에 후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듯이 책을 볼 때에도 그 저자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만일 그가 집구석에서 책만 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책만 봐도 되지만 만일 그가 사회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

서문 첫머리는 책을 읽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인문학에 대해 떠들 수는 없다. 그러면 책은 어떤 사람이 읽는가? 병든 사람이 읽는다. 병든 인간들, 이들이 인문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책이 바라보는 인간을 서술하고 대상 독자를 한정 한 다음에 인간과 텍스트, 컨텍스트의

관계에 대해 말했다.

이제 이 책의 서술방식을 말해야 한다. "텍스트들 스스로가 말하게 하고", 이것이 이 책의 서술 방식이다. "임의로 폴라넨" -- 이건 거짓말이다. 임의로 폴라넨 것은 아니고, 서양 사상사를 원고지 300매로 정리하다보니 거기서 가장 만만하게 걸러드는 책을 잡은 것 뿐이다.

4.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우선 개념사이다. 이를테면 postmodern이라는 것이 있다. postmodern에 대해 알려면 modern부터 알아야 한다. postmodern은 modern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 도출되는 문제이다. 리오타르-하버마스 논쟁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였다. 포스트모던의 개념은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책상머리에서 나온 개념이 아닌 것이다. 모던이라는 개념에는 적어도 500년 이상의 역사가 담겨있다. 라인하르트 코젤렉이 편집한 사전 <<역사적 기본개념들>>을 보면 왜 이런 사전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코젤렉처럼 개념사를 전공한 사람은 그 개념이 형성된 콘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콘텍스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순간에 무식해지곤 한다. 혹은 야후사전에서 찾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한다. 역사적인 콘텍스트를 배제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추체험道體驗과 가장 연관된 개념은 이해Verstehen이다. 딜타이Dilthey의 해석학Hermeneutik 저작에서 보면 이해는 "우리는 파악함에 있어 모든 마음의 힘을 함께 작동시키고 그 마음의 힘을 대상 속으로 몰입시킴으로써 이해한다"는 말이 있다. 이 때 이해의 주체는 마음이다. 그런데 뭔가를 이해할 때 마음을 이해의 주체로 삼으면 이는 매우 심리주의적인 것이다. 딱 그것

뿐이다.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을 배제한 것이다. 그래서 딜타이는 객관적인 방향으로 전환한다. 객관적 의미구조, 객관적 작품, 역사와 역사적 문화의 가치, 그것들의 구조와 법칙성을 파악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다. 마음만 가지고는 이해에 한계가 있다. 만일 이해가 절대적 차원까지 가면 종교가 될 테고, 그때는 신앙이 되겠지만 사람은 적어도 객관적인 차원, 즉 생생의 객관화까지는 가줘야 한다. 그래야 뭔가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체험을 즉물적으로 이해한 입장은 생심리주의이다. 이는 그 기원이 무엇이든간에 한 마디로 욕망으로 귀착된다. 생심리주의에서 시작한 딜타이는 객관적 정신주의로까지 전환해 간다. 객관적 정신주의로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추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체험의 구체적 사례를 <에필로그>에서 설명해두었다. "고전이 보여주는 자아들을 자기 몸에 넣어보고... 다시 빠져나와보고". 객관적 정신의 차원인 것이다. 텍스트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처음에는 텍스트에 즉해서 보는 것이다. 즉자적an sich인 것이다. 그리고 그 텍스트에서 빠져나와 그 텍스트가 속한 시대, 당대성 속에서 보는 것. 이 둘이 매우 중요하다. 몸에 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상기해두자. 텍스트는 안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텍스트 저자는 알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현대의 첨단 이론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과잉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요즘 안 읽는 딜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사실 딜타이는 한물 간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은 what's new를 좋아한다. 그러니 딜타이 거론하면 이상하다. 그러나 딜타이의 문제 상황은 결코 무심코 보아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딜타이는 생철학이라고 하는 시대적 조류에 직면해 있었다. 이전 시대(칸트, 헤겔) 독일 관념론 시대의 끝물에서 생철학의 강한 공격에 맞서 그것에 대한 변호를 했던 사람이다.

여기서 딜타이의 글 하나를 인용하자. Dilthey, <역사적 이성 비판에의 초고Entwürfe zur Kritik der historischen Vernunft>

“생의 현실성에 속박되고 규정된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것의 이해를 통해서 해방된다.”

여기서 생의 현실성 / 예술/ 역사적인 것이 거론되었다. 생의 현실성에 의해 속박, 규정된 인간은 즉자적 인간, 책 안 읽는 인간이다. 욕망에 매어있는 인간이다. 예술은 헤겔이 말하는 절대적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 이걸 잘 모르니 넘어가자. 예술의 경지는 비합리적이니까 말이다. 역사는 객관적 정신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인간이라면 여기까지는 가줘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즉자적 상태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쾌락을 좇으면 쾌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별도의 영역에서 이를 극복할 것을 구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생의 현실성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생의 현실성이라는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뭔가를 통찰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가령 자본주의의 추동력을 "자본의 욕망"이라고 보면, 자본주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인간에게 객관적 실체적 힘을 발휘하는 구조를 볼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아닌 것이다. 자본 그 자체가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 욕망을 가지고 하는 그 무엇, 인간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객관적 정신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가?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을 한번 거론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읽히지 않지만 학문 그 자체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다. 저서중 <<존재론의 정초Zur Grundlegung der Ontologie>>가 있다(형설출판사에서 <<존재학 원론>>으로 번역되어 나왔다). 하르트만에 따르면 객관적 정신은 "정신 세계가 심리 생활(Seelenleben) 상부에 형성하는 특수한 존재영역"이다. 심리생활은 개인에 결부되고 거기서 생멸하나 정신적 생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그의 언급 또 하나를 보자: "역사적으로 진보하는 정신생활. 이러한 의미에서 전체로서 이해되는 정신은 의식과 인격성이 인간을 분리시키는 곳에서 항상 인간을 결합시킨다. 정신과학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신에 관여한다."

인간의 정신 세계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그 중에서 심리 생활의 층위가 있다. 여기서 영혼Seele, psyche은 인간의 정신

중의 한 층위이다. 그리고 이 정신은 넓은 의미에서의 정신Geist이다. 일테면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의 정신이 그것이다. 이는 인간의 정신 전체이다. mind가 아니라 spirit이다. 가령 민족 정신이라고 했을 때 이는 민족 몸뚱아리와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현상학은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철학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가장 저급한 수준부터 신을 탐구하는 종교까지의 모든 정신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다. 정신의 여러 측면 중 Seele의 영역이 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 생활의 상부에 형성하고 있는 특수한 존재 영역이 바로 객관적 정신이다. 영혼이 사회적 맥락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객관적 정신이 형성되고 거기서 법과 제도로 구체화 된다. 그런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 객관적 정신에 관한 논의라는 말이다.

그래서 정신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정신이 심리 현상의 마음인지 인간 정신영역 전체라는 의미에서의 정신인지 따져 봐야 한다. 즉 저자의 출발점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이를테면 흄스의 출발점은 인간을 물리적 신체physical body, 즉 동물과 다를 바 없이 본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그렇게 폭력적인 국가를 귀결되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인데 폭력 말고는 처치할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철학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이 도대체 인간 존재의 어떤 층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를테면 칸트의 도덕 철학 --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의 도덕률 -- 거기서 칸트가 보는 인간은 전혀 욕망적 인간이

아니다. 성철스님같은 인간이다. 칸트를 읽으면 감동은 오지만 스며들지는 못한다. 칸트가 보는 인간의 스타팅 포인트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인간은 공동체, 즉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출발점이 다른데, 사상만 떼어와서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텍스트를 보든 그 텍스트가 인간 존재의 어떤 층위에서 출발하는지를 말이다. 대상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영혼의 구조, 정신의 구조, 객관적 세계의 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진리파악은 존재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다.

5.

"사람의 삶은 고되다. 고됨은 여가를 용납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한번 보자.

all of life can be divided into work and leisure,
war and peace, and something done have
moral worth, while others are merely necessary
and useful.(1333 a30 - 33)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인생을 일askolia과 여가skole로 나누었다. 여가라는데 마시고 노는게 아니다. skole에서 school, schola, Schule, ecole이 나왔다.

상세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걸 찾아낸 과정을 한번 말해보겠다. 내가 처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은 건 아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라는 저널리스트가 있다. 그의 책 <<인간의 조건>>(한길사)이 있다. 이 책에 보면 vita activa라는 개념이 있다. 활동적 삶이라는 뜻이다. 뭘 읽든 각주가 중요하다. 책을 읽을 때 각주에서 나오는 개념 설명을 꼭 읽어야 한다. 이 책의 각주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온 구절이 있다. 거기서부터 내가 찾아내어 읽은 것이다.

몇가지 개념들을 또 살펴보자. 우선 moral thing/

necessary and useful thing. 우리가 good을 쓸 때 good은 moral thing도덕적으로 올바른에도 속하고 필요하고 유용한 것에도 속한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 본성상 착한.

it's good for you. 이 문장에서 good이라는 단어 매우 미묘하다.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moral thing과 necessary and useful이 동일해 진다. 깊게 고민할 필요 없는 단순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생명력이 강한지도 모르겠다.

skole는 askolia를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askolia는 노동labor이다. labor, Arbeit에서 벗어나는 것이 skole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노예가 있는 자들은 necessary and useful에서 벗어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 만일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 성립하려면 매우 단단한 중산층이 있어야 한다. necessary and useful에 빠지지 않아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주는 교훈이다. 경제활동의 압박에서 벗어났을 때 도덕적인 삶도 정치적인 삶도 가능한 것이다. 먹고 살기 바쁘게 될 그리 신경써서 따져가며 사는가 하는 소리를 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고 자본주의는 경제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경제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necessary and useful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점점 탈 민주화되는 이유는 경제적 피폐함에 있다.

플라니(칼 플라니, <<사람의 살림살이>>를 참조하라)는 사회에 문어들어가 있는 socially embeded 경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게 그것이다. 객관적 정신의 영역은 oikos(경제)와 politeia(정치)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politeia는 oikos의 상부이다. 그러니 oikos가 해결이 나와 politeia가 구축 가능하다. 고대 그리스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근본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가 "socially embedded"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항들을 가지고 인간과 객관적 정신 세계를 설명한다. 객관적 사회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같은 경우는 다르다. 그의 도덕률의 성립 근거는 인간 자체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객관적 현실없이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순수하게 이념적인 차원만을 다룬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객관적 사회적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수메르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다. 수메르는 상업지역, 분쟁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 이런 비 일상적인 얘기, 점토판의 극히 일부분에 이런 얘기가 써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다. 주인공은 우르크 왕 길가메시다. 그는 영웅이다. 그리스 영웅보다 1500년 이상을 앞선 영웅이다. 길가메시에 나오는 영웅, 그리스 영웅 모두 약탈자들이다. 이걸 이들이 살던 환경을 생각하면 천성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었으리라 짐작이 된다.

그리스의 영웅들이 어떤 세계에 속했는지를 한번 보자. 여기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들 족보가 있다(제임스 미치너, <<소설>>(열린책들)을 참조하라). 아가멤논이 속한 집안이다. 완전히 패륜과 범죄로 점철된 집안이다. 미치너의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남은 인생동안 여러분은 문학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검열에도 홀연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오콜라호마 침례파 여신도 단체(이 단체들 보수성은 장난아니다. 창조론을 진리로 믿는 꼴통 보수 기독교도다)에서 어떤 책이나 연극에서 사악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항의해 온다면, 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이라고 알려져 왔던 몇몇 작품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행위에 기초해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살인, 모친살해, 근친상간, 배신, 부친살해.. 이 계보도의 인물들에 의지하였던 위대한 작가들, 호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유피피데스... 그들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준 작가들입니다.

고전은 당대를 가장 래디칼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고전이다. 그것에는 미케네 문명의 생활이 남김없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 길가메시 서사시보다는 상인들의 점토판이 고전이다. 다만 그 난폭한 세상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나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이 들어 있고 그런 영웅 조차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

길가메시는 불멸을 찾았다. 아킬레우스(영웅의 운명)는 불멸이 불가능함을 알고 명예를 찾았다. 죽어야 하는 인간이 얻어야 하는 것은 명예인 것이다. 그러다가 개인의 힘으로는 명예를 얻지 못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를 가장 잘 끄집어낸 나라가 로마(단순한 실천)다. 그리고 현대에서 로마적 군국주의의 전통을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가 US이다. 이렇게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의 모티브가 일리아드, 로마시대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명예가 부로 대치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들 하는 것이다.

길가메시여 그대가 찾는 것을 결코 찾을 수
없으리라.....

인간, 세계에 대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인간의 유한함,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자각이다. 이것이 존재론(有와 無), 인간론(삶과 죽음)의 첫 번째 문제이다. 인간존재의 본질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가메시의 세계는 쓸쓸한 세계이면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세계의 근본문제이다.

6.

모세 5경에 이르러 영원한 존재 신이 나온다. 야훼는 복합적 성격의 신이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에서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라는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공포와 탐욕이다. 공포와 탐욕은 심리도 아닌 물리적인 physical 것에 뿌리박고 있다. 원초적인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제1차원이다. 아무리 고상한 것도 내 몸에서 안 받아 주면 안된다.

구약이 보여주는 히브리 민족의 종교는 무지하게 야만적인 종교이다. 야훼는 가차없다. 인간이 까불면 죽인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고도의 정신력을 발휘한다. 야훼는 누구든 걸리면 죽여버린다. 아들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한다. 상식적으로 신이 할 것이 아니다. 젓과 꿀. 알량해 보이는데 그것도 성의 주민을 모두 칼로 죽인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 야훼는 군신이요 전쟁신이다. 길가메시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철학적 주제를 제기했다면 모세5경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인간과 실존적으로 맞닿아 있는 초월적 절대자인 신을 이야기한다. 이 역시 근본문제이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주제를 더 보자. "그(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며..." 이를 오늘날 읽으면 투쟁적, 경쟁적 인간관의 표현이다. 부르주아 시대 관통하는 인간관이다. 우리는 이를 이미 모세 5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도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의 힘이다. 요한복음 첫 머리는 다음과 같다 :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logos은 하느님이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생긴다. 이처럼 히브리 신은 말로써 세상을 만든다. 말 만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은 '무로부터는 아무 것도 나올 수 없다nihil ex nihilo'는 것을 근본원리로 삼는다. 반드시 질료가 있어야 한다. 히브리철학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 형이상학 자체가 다르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융합될 수 없다.

모세오경이 보여주는 또다른 테마는 '비 가시적 것의 진리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철학의 근본문제중 의 하나는 현상/본질 문제이다. 눈에 보이는 게 현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게 본질이라는 서양철학적 전통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본질은 비가시적인 것이요, 진리다.

눈에 보이지 않는게 진리라는게 이때부터 생겨났는데 이것이 공포와 탐욕에 의해 사는 상태와 결합하여 야훼와 같은 신이 탄생한 것이다. 진리는 확인할 수 없다. 안보이니까 진리가 되어 버린다. 인간의 실존과 비가시적 진리가 결합되어 야훼종교가 탄생하는 것이다.

인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층위로 이루어진 삶을 산다.

절대적 정신 세계(예술, 종교)

 객관적 정신 세계(사회, 역사)

 심리생활

 육체생활

광신도들은 육체생활의 차원에 딱 머물러 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심리생활과 객관적 정신 세계에 걸쳐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 것인가?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은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대상을 취급하는 능력이다. '가장 탁월하게'에 포인트가 있다. 철학하는 사람은 가장 탁월해야 하고 대상을 볼 때도 가장 탁월한 위치에서 보아야 한다. 심리생활이나 육체생활의 차원에서 보면 안된다. 그걸 알 필요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된다.

인간을 의지로 환원시키는 니체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본 것이 아니다. 심리생활의 차원에서 인간을 보고 탐구하면 심리학이고, 육체생활의 차원에서 보고 탐구하면 킨제이보고서다. 스킨라 철학은 좀 다르다. 즉자적으로 종교를 믿으면서도 탁월한 학적 성과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이징가는 중세시대가 히스테리 시대라 했다. 육체적 생활의 시대면서 동시에 신에 대한 고도의 사변적 논의(스콜라

철학)가 벌어진 시대여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사물을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플라톤을 읽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박홍규의 <형이상학 강의2>를 읽으면 된다. 이렇게 고전을 잘 주해한 책들을 읽은 다음에 익숙해지면 고전으로 들어가는게 좋다. 플라톤에 따르면, 지적으로 탁월해지려면 감각에서 떠나야 한다. 신체soma에서 벗어나 고양되어야 한다. 그렇게해서 비 가시적인 것으로 간다. 이 과정을 추상화abstrahieren라고 한다. 감각과 육체에서 벗어나 비 가시적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진리인지 사기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추상화는 물리적 세계를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게 학이다. 이런 과정으로 사유를 하여 성과물을 내놓는 것이 학적 결과물이다. necessary & useful이 아니라 abstrahieren을 해서 내놓는 것이 학이다.

이런 세계로 가서 비가시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순수주의이다. 그런 차원에서야 도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직관주의, 순수주의적 도덕론이다. 순수추상의 세계에서 도덕을 성립시키는 사람들이 플라톤, 칸트이다. 인식론에서 말하는 진리와 윤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이 한 차원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존재론, 진리론, 윤리론이 별개의 분과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쌍들인 것이다. 이걸 총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흡스는 원인과 원인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인과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철학이라 했다. 이는 soma 차원의 철학이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인간론은 폭력적 인간이고, 그가 내세우는 국가 역시 같은 차원에 있다. 객관적 정신 차원에서 철학하는 이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는다. 가령 헤겔의 인륜 *Sittlichkeit*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칸트의 *Moralität*(도덕)와는 차원이 다르다. 칸트는 순수주의 차원에 있다.

각각의 철학자를 공부할 때 이 사람이 철학을 뭐로 보느냐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이 다룬 영역. 그들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들은 객관적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심리생활을 주로 따지느냐 등을 반드시 봐야 한다. 이걸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것이다.

7.

이소룡은 영춘권 부터 시작하여 한 20년 정도 몸을 단련했다. 만일 어떤 강의를 듣고 <이게 맞는 것 같아>하는 정도에서 끝내버리면 더이상 진전이 없다. 그건 강의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소룡 영화 보고 교실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흉내내는 것과 다름 바가 없다. 자기가 직접 강의 내용을 써 봐야 한다.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강의를 재구성하여 선생에게 확인을 받지 않으면 강의를 들은 보람이 없다.

이소룡의 절권도가 오랜 기간의 기초 체력 단련으로부터 나왔듯이 우리가 듣는 강의도 듣기만 해서는 안된다. 강의 내용이 자기 몸뚱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체화되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머리부터 손 끝까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자기가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손 끝으로 표현해내기는 힘들다. 자기 몸에 배서 철저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소리다.

강의를 들었으면 관련된 책을 사서 읽고 자기가 스스로 써 봐야 한다. 누군가 강의노트를 써서 올리면 그걸 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프린트 한 후에 자기가 손으로 직접 써 봐야 한다. 자신만의 강의노트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의 내용이 결코 자기 것이 될 수 없고 그저 강의를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다른 제도기관에서 해온대로 공부방식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여기 와서 뭘 듣는 건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생활, 주관, 객관 정신 얘기했다. 인식주관이건 인식대상이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파악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방법론적 전체주의'이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거다. 일테면 '사람을 보려면 찌엄찌엄 보지 말고 그 사람 전체를 다 봐야 한다'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나름의 학문적 위치를 갖게 된 것이 헤겔에 의해서였다.

헤겔 정신 현상학 서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

Das Wahre ist das Ganze. Das Ganze aber ist nur das durch seine Entwicklung sich vollendende Wesen. Es ist von dem absoluten zu sagen, daß es wesentlich Resultat, dass es erst am Ende das ist, was es in Wahrheit ist; und hierin eben besteht seine Natur, Wirkliches, Subjekt, oder Sichselbstwerden zu sein.

진리는 전체이다. 그러나 전체는 자신의 전개를 통해서 완성된 본질일 뿐이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과라는 것, 그것은 종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바로 절대적인 것의 본성은 현실적인 것, 주체 또는 자기형성이라는 것이 성립한다.

"진리는 전체이다" -- 매우 유명한 문구다. 우리가 어떤 사태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태가 생겨난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밑바닥 부터 맨 위까지 모두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전체다. 본질이라는 게 있는 데 그 본질이 그 시초부터 시작하여 전개해서 완료시킬때까지가 진리다. 이와 달리 플라톤은 육체, 감각, 소마를 버려야 진리라고 했다. 헤겔의 입장과는 다르다.

서양철학의 궁극적 실재, 절대적 진리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 Sein의 철학이 있고 Werden의 철학이 있다. 일테면 '감각을 벗어난다, Soma를 버린다 -- abstrahieren', 즉 운동이 빠져나간 상태가 진리라고 본 플라톤은 존재의 철학으로 가는 것이다. 헤겔은 본질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자신을 전개Entwicklung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 즉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성과Resultat라는 것이다. 즉 최종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 성과 안에는 반드시 그 결과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인의 관뚜껑을 닫을 때 한 마디를 하기 마련이다. "시체가 모양이 좋네" 하는 말을 하는게 아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이리이러했다"는 식으로 묘비명epitaph을 쓴다. 이는 그 사람이 태어나 죽기까지의 인생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생 전체를 압축한 것으로 그 사람의 진리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생성된 진리이다. 중국, 막판에 가서야 비로소 진리의 영역에 들어선다. 절대적인 것의 본성은 현실적인것, 구체화된것, 객관과 주관이 서로 작용한

주체 또는 자기 형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방법론적 전체주의다. 어느 한 순간의 단면만을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죽 살펴보는 것이 진리이다. 어떤 대상이 스스로를 형성해나가는 과정 전체를 헤겔은 변증법 *Dialektik*으로 보았다. 사람을 변증법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우리는 총체성 *Totalität*이라고 부른다. 총체성은 단순한 전체 *Allheit*와 다르다. 총체성은 그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다. 이 총체성을 학문의 목적이자 방법으로 삼은 사람 중의 하나가 게오르그 루카치이다. 루카치를 이른바 헤겔리안이라고들 말한다. 헤겔리안이란 헤겔의 주요한 방법론을 자기의 학적 방법론으로 삼아서 직접 해보는 사람이다. 오늘날은 거대담론이라는 이유를 들어 총체성을 부정하곤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한 단면 만을 보고 인생을 살 수는 없는 법이듯 학문도 단면만 볼 수는 없다.

어떤 대상이든 층위가 있는데 그 층위를 따져가면서 봐야 한다. 이는 비단 학적인 얘기만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What are you?> <Who are you?>를 물을 수 있다. What은 본질이므로 나나 너에게 물을 때 대답이 같을 수 있다. 그러나 Who는 호칭으로서 다를 수 있다. 즉 자신의 층위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와 동시에 층위에 대한 <分>도 존재한다. 즉 <군군신신부부자자>에서 <군>은 <군>의 <분>을 갖는다. 즉 <군

다음>이다. 만일 <군>이 <군>답지 않게 행동하면 추잡한 것이 된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객관적 정신 영역에서 기능function과 층위를 규정하는 요소로 그 사람의 호칭과 먹고 사는 방식이 중요하다.

8.

우리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 미케네를 포함하는 -- 그리스 시대를 보고 있다. <일리아스>는 호메로스로 추정되는 서사시인의 작품이다. <일리아스>읽을 때 호메로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먼저 호메로스의 인간 이해를 한번 생각해보자.

초기 그리스의 조형예술에서의 인간 묘사 역시 인간의 실제적인 신체가 통일체로서가 아니라, 집합체로서 파악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기원전 5세기의 고전기의 예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각 부분이 서로에게 관련을 맺고 있는 유기적이며 통일적인 신체로 묘사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호메로스적인 인간들은 후대의 그리스인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체를 '신체 자체'로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四肢의 총체로서 알고 있었던 데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호메로스는 거뜰해서 민첩한 다리, 약동하는 무릎, 아주 건강한 팔을 몇 번이고 말하고 있는데... (브루노 스텔, <<정신의 발견>>, 까치)

브루노 스텔의 <<정신의 발견>>은 반드시 사서 읽어야 할 2차 텍스트이다.

"이도메네우스가 그(알카투스)의 몸을 다녀간
지켜주던..."(16) - 여기서 '몸'이 중요하다.

애들보고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팔과 몸을 잇는 선이
떨어져 있지 않게 그린다. 애들에게는 '통일된 전체로서의
신체'와 '신체의 각 부분'이 동시에 움직여가는 것이다. 호메로스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몸과 팔, 발을 따로 그렸다. 즉 이들에게는
유기적 전체로서의 신체 개념이 없었다. 여기서 '몸'은 몸 전체가
아니라 토르소만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피부만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테면 내가 누구의 몸을
창으로 찢었을 때 이들은 몸이 찢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허벅지가
찢렸다고 말했다. 즉 호메로스의 인간론에 따르면 우리 나라
유치원 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호메로스는 모르고 있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호메로스가 살던 시대의 그리스 언어에
근거해서 호메로스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호메로스를 그
자체로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몸'이라는 표현에서 그저
'아..몸이 찢렸나보다'가 아니라 '몸'의 어떤 부분인지를 봐야
한다. 이것이 텍스트를 당대에 즉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호메로스는 '몸'을 그리스어 *chrôs*로 썼는데 이는 '피부'를
뜻한다.

호메로스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의 운명' 역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운명 *moira*'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우선 아낙시만드로스 *Anaximandros*의 구절을 하나

보자.

사물들은 그들의 출생 연원인 그 사물들로,
정해진 바에 따라 소멸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며, 그들의 불의에 대해 시간의
섭리에 따라 벌금을 문다.

'정해진 바'가 '운명'이다. 질서지워지고 각자의 장소에
배치된 것이 운명이다. 이들은 반드시 그 자리로 가야 한다.
여기서 오늘날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서로 간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그들은 불의에 대해 시간의 섭리에 따라
벌금을 문다는 것이다. 사물들이 무슨 배상금을 물며, 불의를
저지르게 된지가 의아하다. 만약 이 텍스트를 일종의 '탈주적
방식'으로 해석하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때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이는
당대성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세계를 보는 태도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물활론物活論으로
물질이 그것 자체로 활동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물질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적인 원리 -- 그들은 이를
영혼이라고 불렀다 -- 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텍스트에서 불의라든가 배상금이라든가 하는건 뭔가 의미가
있음에 틀림없다.

아낙시만드로스의 말을 이해하려면 **moira**, 정해진 바의

뜻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대체로 운명이라고 하면 '내가 몇 살 때 뭐하고...' 등의 시간의 순서에 따르는 어떤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한 운명은 이와 다르다. **moira**와 가장 비슷한 영어 단어는 **element**이다. **element**는 기초, 요소, 원소, 원리, 영역 등 여러 뜻이 있다. **moira**와 가장 같은 뜻이 '영역'이다. '나와바리'다. '나와바리'란 조폭이나 양아치가 관리하는 생활 영역을 말한다. 만약 류영선이 의정부를 자기 나와바리로 가지고 있다면 의정부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하는 김현주가 차를 운전해서 의정부에 갈 때면 류영선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내야 한다.

흔히 거론되는 4 **element**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다. 이때 지수화풍은 각각의 자신의 영역을 갖는다. 만일 수가 자신의 **moira**, 즉 정해진 바를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 가면 아낙시만드로스가 보기에 이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moira**가 아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면 복수의 여신 **Nemesis**이 나타난다. **moira**를 어긋내는 것이 불의이다. 당연히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에 각각의 영역을 넘어가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인데, 이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완전히 이상한 놈이 된다. 돈독 오른 놈이 된다.

콘포드, <<종교에서 철학으로>>(이화대학 출판부)는 위치럼 설명한다. 그러나 거드리, <<희랍철학입문>>(서광사) --

희랍철학 공부하는데 좋은 텍스트임에 틀림 없다 -- 이 부분에 대해 거드리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은 어떤 환상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고의 새벽을 위한 하나의 주목할만한 업적이었다"고 말했다. 이걸 잘못된 해석이다. 그리스 철학을 합리주의만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운명moira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

가령 대장, 부하1, 부하2...가 있다고 치자. 대장 메넬라오스가 전투를 해서 전리품을 얻었다고 하자. 영화 <트로이>의 배경은 청동기 시대다. 칼이 예리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려면 여러번 찔러야 한다. 심장 박동 때문에 거기에 꽂힌 창자루도 흔들린다. 이 때 부하 1,2 등이 자신이 따온 몫을 보여주면 대장은 moira, 즉 그가 해운 바에 따라 전리품을 분배해 줬다. moira는 분배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목을 두 개만 탄 놈이 네 개 탄 놈처럼 행하려고 하면 그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분배는 그리스어로 nemein, 즉 나누어주다는 뜻이다. nemein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nemesis다. 똑바로 안하면 바로 복수한다는 것이다. nemein에서 나온 말이 nomos, 즉 법이다. moira가 nemein의 차원에 오면 정의justice가 된다. justice의 첫번째 뜻은 다름 아닌 '제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정의의 첫번째 뜻이 바로 제대로 나눠먹기다.

그럼 그리스는 왜 그리 제대로 나눠먹는 것에 신경을

썼나?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리 신경 안쓴다. 농사 지으려면 혼자 못 짓고 여럿이 모여서 짓는다. 이는 축구와 비슷하다. 어떤 놈 때문에 이기고 졌는지 알기 힘들다. 이와 달리 격투기는 깔끔하다. 그리스인들은 배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약탈경제를 하던 놈들로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른다. 뭔가가 생기면 그때그때 처와 자식에게 줘야 한다. 농사야 1년되면 수확하지만 이들은 자기 것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태다. 왜 서양인들이 그리 분배에 집착하는지, 뭔가를 먹을 때 조차 자기 그릇을 들고 떨어져 먹는지 이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합리성, 합리주의 *rationalism*에서 *ratio*는 라틴어로 '계산하다'이다. 깔끔하게 따지고 나누는 것이다. 나누어주는 규칙을 그때그때 만들기 귀찮아서 이를 법 *nomos*으로 만든 것이다.

*moira*는 힘이라기 보다는 체계로서, 부정적 측면으로 기울이는 반면, *nomos*는 역동적이고 긍정적이다. 아테네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moira*를 생각하고 이에 따라 살면 자기는 운명에 따라 사는 것이며 동시에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moira*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다. *nomos*는 한 지역의 고정된 영역이기는 하나 정상적 행위, 관습을 의미한다. *moira*라는 정해진 바가 *nomos*로 바뀔 때 따라 공동체, 사회철학적 의미로 바뀌게 된다. 이게 콘포드의 <<종교에서 철학으로>>에 나와 있다. *moira*는 처음에는 종교적인 개념이다. 오늘날 인격 신의 종교가 아니라 신비주의적 개념이었다. 종교적

개념인 **moira**가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머리를 굴려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인 **nomos**로 바뀐 것이다.

moira든 **nomos**든 공통된 것은 '정해진 바'이다. 이는 필연성이다. 소크라테스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지행합일'이다. 이는 '진리를 알면 바로 실천하라'인데 여기서 '진리'가 정해진 바이다. 즉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moira**와 **nomos**를 알고 **nomos**를 따라가면 법칙에 따라 합당한**recht** 것이다.

9.

아킬레우스는 영원히 사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가 원한 건 명예였다. 그리스 사람들은 "선악이 아닌 명예와 불명예로 움직인다." 그들은 시체에서 갑옷 떼어내서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명예로운 것이다.

이제 명예, 덕, 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arete와 agathos라는 말은 애초에는 아직 유용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초기에는 전혀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호메로스가 어떤 한 인간을 'agathos'하다고 말할 때, 그는 인간이 도덕상으로 비난할만한 여지가 없다든가, 혹은 마음이 선량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훌륭한 군인과 우수한 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처럼 유용하고 소용있고, 수완(능력)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arete라는 말도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품위, 공적, 성공, 신망 등을 의미한다.

arete를 위해서 행하게 되는 경쟁의 보수는 고전시대에 이르기까지 명성과 명예였다. 공동체는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치를 보증한다. 따라서 명예(time)는 도덕의식의 발달에서 arete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루노 스넬, <<정신의 발견>>, 까치)

agathos.

이게 도덕적 의미의 '선'이 아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합리주의다. 로마시대에 가면 이게 이 의식 속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화되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다.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그리스, 로마에 기초한다는 말은 헛소리가 아닌 것이다.

한국 인구의 2/3는 근대 세계에 태어나지 않았다. 전교조 선생들에게까지도 싸가지 중심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다. 게다가 남의 삶에 엄청나게 참견한다. 옆집 사는 사람 손가락 수 까지 알 정도다. 서양인들 - moira 나눠먹기부터 세팅되어있는 것과 매우 다르다. 이러니 완전히 서양화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서양인들은 그리스때부터 이미 합리주의적인 사고, 행동을 해왔다. 어쨌든 agathos는 호메로스시대부터 유용한, 소용, 수완 있는 의미로 쓰였다.

'저 사람은 철학공부에 arete가 있어'라고 말하면, 철학공부를 잘 한다는 뜻일 뿐이다. 이당시 이들은 사람의 신체를 따로따로 떼어내 생각했듯이 인간의 심정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명예였고 명예를 얻은 자가 영웅이다.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그리스의 문명의 탄생>>에 보면 영웅의 정의가 나와있다.

"영웅이란 낱말 크레타어에서 온 것인데... 영웅이란 자손이 정성껏 바치는 재산을 받아 무덤 너머까지 그의 권능을

행사하여 사후에도 생전에 다스리던 공동체를 보호해주는 위대한 인물을 말한다." 영웅이 되려면 명예time를 얻어야 한다. 명예는 누가 주는가? 공동체에서 준다. arete, 즉 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예가 먼저다. 명예가 있는 후에 arete로 간다. 그래서 도덕의식의 발달에서 arete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게 명예다. 즉 서양인의 도덕의식은 명예에서 왔고 이에 따라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전통이 생겼다. 전쟁에서 죽으면 명예를 받은 서양인과 달리 동양에서는 대가 끊겨서 아니될 일이었다. 도덕을 바라보는 근본 구조가 다르다. 개인이 도를 닦아서 도덕적이 되는게 아니라 명예를 얻어야 덕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인들의 행동 동기는 뭔지 보자 .

1. 유용한 것, 이익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2. 행복의 탐구 - 철학자들이 하는 것.
3. 자신의 공적을 통한 명망을 획득하는 것.

즉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명예가 될 때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세 가지 종류의 삶, 즉 상인, 운동선수, 관객을 나눴다. 상인 - agathos, 운동선수 - time. 두가지가 추상화되어 arete덕이 됐다. 관객은 관조theoria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theoria가 되는가. 운동을 해 보고 관객이 되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소룡 흉내내며 고양이 울음 짓는

애와 다를 바 없다. 그리스인들은 실제로 관조만 한게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arete를 쌓고 그 후에 theoria를 했다. 그리스인들은 pragmata - 눈 앞에 주어진 구체적인 것, data - 를 먼저 생각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사람이 태어났을때부터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철학, 즉 변증술을 익힐 단계가 된다. 플라톤이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라 했어도 시대의 아들이다. 자신의 시대를 뛰어 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철학을 해야 제대로 된 철학을 할 수 있다. 환상 문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theoria는 사람이 할 것이 못된다.

10.

사람은 동물적 차원에 있다가 객관적 세계로 나아가고 다시 자기 안으로 돌아온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비극이다. 세계사의 전개 단계도 그러하고 개인의 정신의 전개 과정도 그러하다. 그리스 비극은 철저한 자기 의식에서 나온다. 호메로스 시대에는 비극이 나올 수가 없다. 인간조차 사지를 떼어서 생각하던 시대인데 무슨 자기의식이 있겠는가. 문제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극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탐구이다. 비극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온 인간들을 자기의식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이 대표적이다. 오레스테스 3부작에 나오는 아가멤논은 호메로스 서사시와 다르지 않지 않은가? 다르다. 호메로스는 영웅들을 선과 덕, 명예의 관점에서 봤고 아이스킬로스는 전적으로 자기의식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호메로스 서사시 다 읽어봤자 '내 출생의 비밀을 밝혀내기를 꺼려서는 안돼'와 같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 즉 독백이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문제사적으로 볼때 비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요구될 때 등장하는 것이다. 물론 비극 등장의 객관적 배경이야 그리스가 이미 전쟁 불바다가 되어 있을 때이다. 박홍규 선생의 <<형이상학 강의2>>에 나오는 '플라톤과 전쟁'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전쟁에 나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갈데 까지 가서 도대체 답을 못 내는 상황에서

비극이 나오는 것이다.

갈 때까지 간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인간의 운명moira을 묻는 것이 그리스 비극이라면 갈때까지 간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묻는 것이 플라톤의 국가론이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과 플라톤의 국가론은 공통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인문학의 관심 즉 인간과 사회에 대한 모든 탐구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안티고네'에서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둘 다 파멸에 이를때까지 대결한다. 갈 데 까지 가는 것이다. 이게 radical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 비극경연대회는 나홀간 진행되었는데 그걸 다보면 15편정도였다. 아마 나중에는 몽롱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상태에서 문제상황을 보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서 피가 탁 튀기는지를 보는 것이다. 혈연공동체가 우선이나 시민적 결사체가 우선이나를 피말리면서 보는 것이다. 혈연공동체는 신이 정해준 것이고, 시민결사체는 인간이 정한 것으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양인들은 후자에 강조를 두었다. 그래서 로마가 가능했다. 노모스만 지킨다면 시민으로 인정하고 식민지인에게도 시민권을 준 것이다.

플라톤은 영원한 것,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을 찾아보다가 <국가>를 썼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쓸쓸한 세계에 대한 처절한 반응이다. 모세5경은 신과 인간의 교섭의 역사이다. 호메로스 영웅 서사시, 그리스 비극 등은

공동체의 덕에 대해 얘기하다가, 망가진 세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플라톤은 <플라톤과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튀는 세계를, 길가메시 서사시처럼 단순히 반영하는게 아니라 지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관조하여 순수주의로 올라선다. 여기서 서양철학의 화해 하기 어려운 두 조류가 생겨난다.

pragmata에 중점두고 moira지키면서 나눠먹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순수한 관조, 형이상학을 강조하는 순수주의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 주에는 로마와 중세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 로마와 중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다. 문제사적으로 별로 중요치 않다. 철학사가 없다. 철학자가 없는 시대는 행복한 시대다.

11.

지금까지는 주로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방법에 대해 얘기하겠다.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학을 이루는 최소 단위는 개념이다. 개념을 풀어내면 명제가 된다. 학으로 나아가려면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어야 한다. 그런데 논리는 '논리야 놀자' 같은 책을 마스터하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을 하는 사람은 논리학 -- 논리학은 학이 아니다. 기능일 뿐이다 -- 뿐만 아니라 고유의 방법 $Method$ 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방법 외에도 학은 학문에 대한 목적, 목적 안에 있는 의도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결과물이 같지만 결과에 이르는 방법이 달랐다면 이들은 다른 학파인 것이다.

우리가 꽃놀이를 가서 꽃을 본 후 '야, 꽃 속에 우주가 있네'라고 말하는 것과 생물학자가 30년 동안 꽃에 대해 탐구한 후 '꽃 속에 우주가 있다'고 내린 결론은 같을 수 있다. 자연에 대해 궁금하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꽃 속에 우주가 있다'는 같은 결론을 낸다해도 양자는 다른 방법으로 결론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그저 취미가요 후자를 학자라고 부를 수 있다. 가령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기 위해 학적으로 천착한 책은 리비우스의 <<로마사>>였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사>>에 대해 주석을 달아 쓴 책이 있는데 이것이 마키아벨리 사상의 핵심이다. 그는 여기서 로마의 [단순한 실천]을 끄집어 내고자 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결론이고 방법은 '주석달기'였던

것이다.

방법을 말하기 전에 단어 몇 개를 살펴보자.

'매개' -- 이것에 관한 것은 나카자와 신이치의 <<신화, 인류 태고의 철학>>(동아시아)을 참조하면 좋다. 신이치는 이어서 이런 매개가 서양사상에서 계속 배척되어 왔는데 근대 이후 헤겔에서 재발견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헤겔에서 재발견 되기 전에 이미 발견된 바 있다. 모두스 뵘넨스modus ponens -- 이게 로마의 시대정신이다. 신비주의는 이성적 분별modus ponens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무차별로 통합시킨다.

방법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고전주의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고전주의란 무엇인가? 고전주의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질서, 조화(그러나 이는 기하학적 조화를 뜻한다), Kanon(정전, 규범), 영원 불변의 것... 이런 것들을 다 묶어 한 단어로 말하면 이상Ideal이다. 만일 누가 고전주의자면 그는 idealist요 관념론자요 이상주의자다.

우리가 고전주의하면 떠올리는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고전주의에 입각한 이들은 매우 피곤하게 산 사람들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고전주의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났다. ideal에 대립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이다. 풀수 고전주의자들은 현실 정치 안에서는 파시스트가 된다. 깔끔한 질서를 현실 정치에 실현하고자 하다보니 파시스트가 된다. 말 안 듣는 놈들을 가스실에 넣어 죽이고 물어 버린다. 물론 파시즘은 낭만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질서를 현실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고전주의를 밑에 깔고 있다.

우리는 당위Sollen(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와 현실sein(지금 그러한 바)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게 된다. 일테면 내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성형외과에 가서 '장동건처럼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장동건'은 Kanon이 된다. 극단적으로 고전주의적 이상을 가진 이들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즉 현실을 이상에 맞출 때는 돈이 필요한 법인데 이를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면 파시스트가 된다. 이는 현실과 이상을 매개하는 문제로 철학적 문제의 하나이다. 어떻게 존재를 당위에 맞출 것인가 --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매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독단론자이다.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ideal을 가지고 있고 이를 현실 안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를 매개하는데 있어 고민하지 않는 이들도 있으니 그들이 카이사르와 마키아벨리이다. 마키아벨리는 아예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가치판단에는 이상이 필요한데 마키아벨리는 오직 현실만을 따진다.

철학에는 몇 가지 조류들이 있다. 플라톤에게 끼친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플라톤처럼 현실을 그림자로 봐 버리고 이데아를 동경Sehnsucht하는 것은 매개를 끊는 것이요 그것이 순수주의이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 현실과 이상 간의 매개는 고작 상기Recollection이다. 다 끊어져

있는데 느닷없이 상기가 들어갈 뿐이다. 플라톤의 인식론을 따르자면 우리가 내공이 엄청 많지 않으면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없다. 평생 가봐야 깨달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인들은 플라톤 공부를 안했다. 공부할수록 짜증나니까 단순하게 살았다. 서커스 구경 가고 속주 여행 다니고 별장에 가서 놀았다. 플라톤 철학은 서구 이상주의가 갈 때까지 간성과몰이기 때문일 게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뚜렷하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경계가 있다. 그래서 언짢다. 이들은 두 세계에 속하는 것을 싫어했다. 매개를 허락하지 않는다. 경계를 엄격하게 긋는, 즉 말뚝박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철학자들 중 흄, 칸트, 비트겐슈타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여기에, 저기에 속하는 것은 저기에 속한다고 말한다. 칸트는 물자체Ding an sich의 세계와 인간의 인식이 가능한 세계인 현상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완전히 나누어 버렸다. 이는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흄Hume으로 인해 독단의 잠에서 깨어난 칸트의 성과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칸트의 저작이 <<순수이성 비판>>이다. 여기서 비판Kritik은 각자의 나와바리 즉 moira를 정해주는 것이다. 칸트는 결코 두 세계를 매개하려 하지 않는다. 신 역시 "요청"할 뿐 매개하려 들지 않는다.

서양철학의 주류는, 늘 강조하지만,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흄, 칸트, 비트겐슈타인 등이다. 즉 모두스 뽀넨스에 충실한

이들이다. 일테면 케니가 공저자로 참여한 <<서양철학사>>(이제이복스)는 서양철학의 주류만을 강조하고 힐슈베르거의 책은 오히려 주류를 무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계를 지워버리는 야바위꾼들이 있다. 신이치도 지적했듯이 헤겔은 매개를 살리는, 혹은 경계를 지우는 철학자이다. 뚜렷한 경계를 세운 칸트와 다르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물자체와 현상계가 다르다고 말한다. <<실천이성 비판>>은 <<순수이성비판>>과 완전히 다른 얘기다. <<순수이성 비판>>을 읽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실천이성 비판>>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모른다고 해버렸던 물자체를 요청한다. 그래서 양자를 엮기 위한 제 3의 저서 <<판단력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양자를 엮지 못한 것이 하르트만이 전하는 칸트의 한계였고 이 미해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칸트의 뒤를 이은 독일 관념론자들의 문제였다.

헤겔 <<정신현상학>>은 감각적 확실성에서 출발하여 절대적 지에 이른다. 절대적 지는 어찌 보면 신이다. 칸트식으로 말해보면 감각적 확실성은 현상이고 절대적 지는 물자체다. 이상이란 것이 헤겔의 철학에서는 한 통 안에 속해 있다. 즉 내가 절대지를 알 수 있을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핀들레이는 "헤겔의 철학은 그 체계 안에서 보면 모두 진리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그 체계를 벗어나면 모두 거짓으로 보인다'는 것을 덧붙인다.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 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말도 안된다. 우리는 오성의 단계에서 발발거리다가 죽는다.

헤겔은 <<논리학>>, <<엔치클로페디>> 등에서 매개를 통해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그래서 헤겔은 절대로 고전주의자가 아니요 낭만주의자다.

서양학을 방법을 기준으로 나누면 경계적 방법이나 매개적 방법이냐가 된다. 송대방의 <<헤르메스의 기둥>>을 읽어보면 서양인들이 헤르메스에 대해 가진 생각을 알 수 있다. 더 잘 알려주는 책은 에코의 <<푸코의 진자>>이다. 신비주의사상을 다룬 것이다. **modus**는 이성적 분별 쪽이고 **Hermes**는 몽개는 쪽이다. 경계선을 몽개니까 매개인 것이다.

움베르토 에코, <<해석의 한계>> (열린책들)를 보자. 에코는 기본적으로 합리주의자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가 결코 아니다. "헤르메스주의" -- 이는 2세기 경 헬레니즘 세계를 뒤엎었던 사상으로 로마의 전통적인 **modus ponens**에 대비된다. 모두스 뵘넨스로서의 로마 대 헤르메스로서의 헬레니즘 세계라는 구도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 매개의 사상은 헤겔이 아니라 이미 2세기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부신학은 그리스 합리주의와 섭리적인 역사 방향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일직선적 역사관이 성립된다. 모두스 뵘넨스에 입각한 결과인 것이다. 교부신학이 개념을 구성한다면 그노시스주의(헤르메스주의)는 심리적 증상인 신드롬을 궁리한다. 그노시스적 인간은 초인(니체를 상기시킨다)으로 변해간다. 이를 통해 에코는 니체 역시 그노시스주의자임을 암시한다.

modus ponens에는 시간적 선후가 있고 합리적 분별이 있다. 이것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들은 동일률과 모순률에 입각하여 사유한다. 반면에 Hermes주의는 "시간과 역사를 향하여 거부의 신드롬을 궁리한다." 즉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원인cause에서 결과effect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독일 낭만주의라는 토대위에서 학적으로 성립시킨 사람이 바로 헤겔이다. 헤겔 철학은 modus ponens에 입각하여 사유할 수 없다. 그래서 원융회통(커다란 원에서 뭉쳐 만나진다)사상과 통하기도 한다. 원 안에 순환 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을 그리며 쭉욱 가버리면 결국에는 초인이 된다. 선과 악을 넘어서버리고 "선악의 피안"으로 간다. 이처럼 절대적 진리라는 결론이 같아도 방법이 다르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없다.

헤르메스적 그노시스적 사유에서는 '경계지우기'가 행해진다. 그런데 만일 헤르메스적인 방법, 즉 매개의 방법을 가지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려고 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마르크스는 모두스라는 방법을 택한 사상가이다.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학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것으로써 '과학적' -- 이게 모두스적인 것이다 -- 이라는 방법과 '사회주의'라는 목적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아이덴티티를 규정한 것이다. 푸르동과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의 차이점은 '사회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푸르동이 목표는 같지만 조야하다고 crude 평한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수용했다. 동시에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은 거꾸로 서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헤겔의 철학이 신비주의적이라는 뜻이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헤겔의 변증법은 원인과 결과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 헤르메스적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신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여 [역사적 방법(발생적-구조적)]을 제시해냈다. 헤겔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에서 시간을 일직선으로 놓지 않고 원으로 만들어 버렸으나 마르크스는 원을 직선으로 펴 낸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전도되어있다는 신비주의를 떨어내고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끌어들인게 마르크스의 학적 방법론이다. 분명히 경계 세우기를 하는 모두스의 입장에 선 것이다.

이처럼 방법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좌파라고 할 때에도 반자본, 비국가 등과 같은 결론을 보는게 먼저지만 그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보아야 한다. 그의 방법이 모두스 뽀넨스적인지 그노시스적인지 혹은 이도저도 아닌지를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좌파적 방법의 문제가 요즘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따지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로 마르크스에 있어서 중요한 당파성이 지워진다. 그러면 부르주아 경제학이 되어 버린다. 둘째로 마르크스를 비마르크스적으로, 또는 반마르크스적으로 읽는 일이 생긴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

헤겔을 처음 공부하면 모든 경계를 지우고 우주론적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야망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한 마르크스를 읽으면 그의 신비주의적 요소를 알게 된다. <<근대 실천 철학 연구>> 끝 부분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마르크스는 월쉬Walsh의 말처럼(<<역사철학>>) 사회과학자들을 위한 학문적 지침을 만든 것이다. 철학의 신비성을 없애고 난리죽이는 낭만주의자들과 헤겔이라는 거대한 구름 속에서 전통적인 모두스 뽀넨스적 방법을 다시 끄집어 내었다. 오늘날 우리가 '마르크스로 돌아간다'고 말하려면 바로 이러한 모두스 뽀넨스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방법은 경계지우기를 사용하면서 마르크스로 돌아가면, 프루동처럼 조야한 사회주의가 된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학문적 성과물을 볼 때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거기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안에 살면 누구나 반 자본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가진 자를 미워한 연쇄 살인범을 가리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 방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양철학사를 읽어보면 철학자들의 결론이 죄다 거기서 거기다. 그럼에도 이들을 나누는 이유는 그들의 학적 방법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다.

12.

쿠자누스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신비주의자면서도 그만큼 근대적인 학자도 없다. 쿠자누스에 관해서는 에른스트 카시러의 <<르네상스 철학에서의 개체와 우주>>(민음사)를 참조해야 한다. 중세철학하면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들어봤어도 쿠자누스는 별로 들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쿠자누스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무한자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인간의 종속적 관계가 폐기되고 인간의 지위가 격상된다. 개체성의 발견 곧 근대성이 시작된다.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인간은 우주보다는 연약한 존재지만 광대하고도 무한한 우주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 이런게 쿠자누스에서 연원하는 얘기이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를 근대적 사유에 있어 遠祖(먼 조상) 격으로 볼 수 있다. 신을 파악해서 철학자는 합리적인 논증을 구성한다. 이것이 예술가에 가서는 천재가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는 진리를 파악해서 진리는 표상하는 존재로서의 천재이다. 독일 낭만주의시대에도 천재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천재다. 난리 죽이는 놈들이다. 별 볼일 없는 천재와 별을 바라보는 천재를 구별하자.

다빈치는 방식manner과 양식Stil(style)을 구별해서 썼다. 전자는 우연적, 개인적인 성향이요 후자는 새로운 예술적 형식과

방법론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그래서 천재는 사태의 본질에 관여하여 이를 개념적으로 파악해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구현한다. Stil 안에는 지적 파악을 구현하는 방법까지 들어간다. 방법 또 나왔다. 그만큼 중요하다. 누군가가 히로뽕 백 대 맞고 모나리자를 그려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르네상스적 천재는 Stil을 만들어낸 이들이요 낭만주의적 천재는 그저 manner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설명은 김규영, 정의채, <<중세철학사>> (지학사)에서 해당 부분을 재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의 시대배경에 관한 것은 자크 르 고프의 <<중세의 지식인들>>(동문선)을 베낀 것이다.

그러면 <<책과 세계>>에 있는 것과 다른 책에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해보자. 먼저 <<책과 세계>>에 있는 것: "그러므로 중세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재발견된 플라톤철학, 아리스토텔레스철학, 헬레니즘, 아랍철학 및 이교사상 등을 기독교 중심으로 종합하고 재정리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낸 결과물인 것이다. 그의 사상은 어설픈 절충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소화해낸 새로운 종합이었다."

다음은 진중권의 <<미학 오딧세이>> 1권에 있는 내용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문턱에 살았다. 이미 중세적 사고방식은 해체되고 있었고, 교회는 점차

발전하는 자연과학과 상대해야 했다.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 토마스의 해결책은 '이성'과 '계시'를 아예 분리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양자를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동그라미로 나누어 버리는 거다."

진중권의 언급은 문헌적 팩트에 근거한 말이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문턱에 살았다"는 거짓말이다. 그는 중세의 절정에 살았다. "이미 중세적 사고방식은 해체되고 ..." 있지 않았다. 자연과학도 없었다. 당시 교회의 적은 이단운동이었다. 그래서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 도미니크 수도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학자, 이단 심판관들이 많이 나온 것이다. "토마스의 해결책은 이성과 계시를 아예 분리..."한 것이 아니라 양자를 종합하는 것이었다. 학적으로 그는 결코 양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진중권의 이 구절들을 정확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자기가 막연히 이해한 대로 쓴 것일 뿐이다. 이런 책이 많이 팔린다. 독자야 모른다치고 글쓴이는 알고 있었을까? 어쨌든 이는 지적 사기이며 한국 지식인 태반이 저지르는 작태이다. 예수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예수 자신이 메시아인지 예수 역시 언젠가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다. 그런데 이스라엘 세 번도 더 돌았는데 사람의 아들은 오지 않았다. 여기서 바울로의 업적이 등장한다. [믿는 자가 많아지면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인지적

부조화 이론에 입각해 바울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어 버렸다. 많이 팔린 책이면 그게 진리가 되어 버리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 같다. 마치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것과 비슷하다. 어쨌든 어떤 책이든 논리적 정합성과 사실적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특히 지적 사기가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모두스와 매개, 각각의 학문방법론 기억해두자.

다음주 근대 세계, 매체 얘기를 할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는 로마시대, 마키아벨리의 세속성, 서구 저변에 놓인 약탈적 시스템, 다윈의 진화론, 홉스의 국가론, 데카르트 및 뉴턴의 기계론 등이 결합된 것으로 엄청나게 단단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체제가 없었다.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 형성된 것으로 깨기 힘들거니와 사람이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욕망에 호소하여 흡입력이 강하다.

13.

지난 번에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대해 글을 써오라고 과제를 내주었는데 그 중 잘 쓴 글을 하나 소개하겠다. 이 글을 쓴 학생은 지난 학기 동국대학에서 '종교의 이해'라는 강의를 들었다.

종교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의 순서를 거친다.

1. 정의definition: 'what is' question부터 시작한다.

what is라는 질문은 철학 공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야한다.

2. 기원origin: 종교의 기원을 따져본다. 심리학적 기원, 사회학적 기원. 이는 기원 그 자체에 대한 탐구와 함께 심리적 강박 행위 등이 종교의 기원이 된다. 역사적 전개 과정을 따지는 historical search도 반드시 필요하다. historical search안에는 how to = mechanism까지도 들어간다.

3. today: 오늘날의 상황을 따져본다. 3도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 탐구에 속한다.

1-3을 모두 아우르면 대상에 대해 전체적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입각한 탐구 방법이다.

이 과정 전체를 모두 묶어서 개념Begriff라고 한다. '종교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본래 무엇이었고 어떻게 전개 되었고 오늘날 어떤 모습을 가지는 지를 총괄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 '개념적으로 파악한다begreifen'고 말한다. 물론 여러분이 모두 철학공부를 할 것을 원하지도 않거니와 철학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건 간에 이러한 개념적 파악을 반드시 수행하기를 바랄 뿐이다.

서양 근대는 로마인들이 말한 단순한 실천이 이데올로기적인 근거로까지 마련된 시대이다. 1789-1848년의 60년간을 다루는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 첫머리를 보자.

날말들은 때때로 기록보다 더욱 효과적인 증거가 된다. 기본적으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60년이란 기간 동안 창안되거나 그 현대적 의미를 얻은 몇 개의 영어 낱말들을 생각해 보자,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가 세워지면서 미국에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본가의 야망을 서술한 책으로 에인 랜드의 <<아틀라스>>가 있다.그런데 1789년이라는 해가 왜 선택 되었을까? 178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프랑스 혁명이다. 역사학에서 '1789년의 세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는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는 잊어버릴 지언정 "1789년"은 잊어버리면 안된다. 1848년은 바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해이다. 대충 한국의 해방부터 지금까지에 해당하는 이 짧은 60년 동안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 혁명부터 공산당 선언까지 일어났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면 신석기 농업혁명과 1789년의 세계이다. 고고학적 관점에서보면 지금은 철기 시대이다.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 중 철기 시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신석기 농업혁명부터 정착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농업 중심의 사회이다. 그러나 1789년에 이르러 사람이 사는 기본 나가리가 바뀐다. 도시의 시대요 산업의 시대가 된다. 사실상 Modern Age근대는 1789년부터 시작된 셈이다. 1500년경에 산 사람은 사실상 기원 후 2세기 로마에 살던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 비슷한 셈이다. 그러나 1800년대의 사람과 1900년대의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근대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다면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 서문을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한다. 근대에 대해 알려고 데카르트의 책을 읽으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데카르트가 왜 회의주의에 빠졌는지를 알려면 사실 데카르트가 살아간 배경을 보면 된다. 그 당시는 유럽의 30년 전쟁 시기였다. 오랜 전쟁 기간 동안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잡고 살 수는 없다. 이는 철학적 백날 읽어봐야 알 수 없다. 역사책 한 번 읽으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철학 공부를 하려고 해도 우선 역사책을 읽어서 그 시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쌓은 후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써 놓은 저작을 읽어 나가는 순서로 공부해야 한다.

1789년 이전의 자연은 눈에 보이는 자연이라면 1789년 이후에는 법과 제도적 질서가 자연이 된다. 일종의 제2의 자연이다. 불심 검문할 때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내 얼굴이 맞지 않으면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 내가 있어야 민중도 있는건데 어째 민증이 나보다 더 실체적인 것이 되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모든 것이 녹아 내린다"고 지적한다. 건축업자들은 계속 건물을 허물었다 지었다 한다.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곧 근대의 허무주의를 낳는다. 1789년 이후의 세계는 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가지고 전개 된다.

이 체제가 딱 갈 때 까지 가면 '인간'이 없는 세계가 된다. 가령 아날학파의 역사 기술에 따르면 토대, 장기지속만 표현할 수 있으면 인간없이 역사 기술이 가능하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 알튀세르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보라. 알튀세르는 인간이 빠져나가야 휴머니즘적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적 마르크스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본 근대의 모습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한다. 아날학파의 역사 서술이 명쾌하고 알튀세르의 과학적 마르크스주의가 뛰어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을 읽고 나면 인간이 배제 되어 있어 허무해진다. 이는 사실 16,17,18세기에 과학, 철학을 하던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는 큰 틀에서 보면 1789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기간은 특별히 깊이있게 연구하지 않는 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다.

홉스는 생물 연대는 그 이전이어도 '1789년의 세계'에 속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딱 들어 맞는 이가 아담 스미스다. 그는 1723에 태어나서 1790년 까지 살았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1651년에 나왔다. <<종의 기원>>은 1859년에 나왔다. 1859년은 아주 먼 옛날로 느껴지지만 사실 <<종의 기원>>에서 전하는 "경쟁하는 인간"은 오늘날 세계 안에서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테면 조선 시대에 선비 집안에서 애가 태어나면, 태어나면서 부터 입신양명이라는 목적이 부여된다. 서양 중세 시대는 세계는 신의 뜻이 실현되는 공간이므로 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된다. 그러나 근대 사회는 철저히 목적이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씹질 하는 것일 뿐이다.

<<리바이어던>>이 절대주의적 국가의 정당화라고 말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홉스의 인간관이다. 첫번째 시간에 '인간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다. 홉스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계처럼 무한히 움직여 간다. 즉 목적이 욕구 충족에 있다. 이를 홉스는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세팅한 사람이다.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 역시 이익 또는 이기심 중심이다. 스미스의 인간관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이다. 도덕적

실천까지 고려하는 인간을 스미스는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지는 것을 인간으로 규정해 버린다. 그런데 스미스는 대학의 윤리학 교수였음을 잊지 말자. 이게 도덕이다. 자기 이익 잘 따지는게 도덕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켜왔던 도덕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론의 지평에서든 실천의 지평에서든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그것 자체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이것이 근대 세계가 추구해온 모습이다.

그런 인간들이 당연히 하나의 **machine**이 된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 안에 내재된 본성이 없다. 욕구만 있다. 욕구 가진 사람을 교육시켜서 필요한 장소에 임의로 배치하기만 하면 거기에 적합한 기계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인간이다. 자본주의 안에서 고용되고 배치되지 않아 기계가 못된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적인 노동labor은 하지 못해도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알려주는 등의 일work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랑자가 된다. 이들은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 그래서 감옥이 탄생한다. 이제 사람을 그의 **capacity**에서만 파악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밀려나는 놈들은 완전히 떠밀려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아야 한다. 현 사회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인간을 취급하는 지를 보아야 한다. 지금 농촌에서 오로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없다. 농사 역시 공업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완전한 의미에서 자급자족 하는 곳은 없다. 가령 서울에서 전기 끊어지면 다 죽는다. 여기서 사는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 경쟁하는 인간이다. 계속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주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산다. 현대 사회의 운용 원리를 아주 도식해서 보면 이 투쟁, 경쟁을 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맡기자는 입장이 있고 보이는 손(국가)에 맡기자는 입장이 있다.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 어땠는가? 큰 손들이 있지. 차라리 눈에 보이는 국가가 나올 수도 있다. 데모도 할 수 있다. 삼성 본관에 가서 데모해봤자 이견회가 눈 하나 깜짝할까? 마이바흐타고 '흥!'하면서 그냥 가지.

끊임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안에서 그냥 '우리 끼리 착하게 살자'고 다짐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 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 끼리만 해피하게 살다 죽는거다. 사실 절간 역시 할머니들 시주 돈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

1789년 이후의 세계에 살며 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치 경제학을 공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세계가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역사적 탐구를 해야 한다. 1789년 이후 세계를 움직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유에스 등의 이른바 Agent State들이 있어왔다. 흡스봄이 지적하고 있듯이 "1789-1848년의 위대한 혁명은 ;'공업 자체'의 승리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공업의 승리였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한 생산을 경제적 활동의 기본으로 삼는 체제이다. 한국에 과학은 많이 발달하였으나 왜 한국은 아직도 빌빌거릴까? 자본주의적 과학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승리였으며 부르주아적 자유사회의 승리였고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지역의 여러 경제와 국가들의 승리였던 것이다.

agent state들을 한번 살펴보자.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던 요소는 군사력이었다. 이탈리아 내에서 자급자족이 안되서 끊임없이 식량 운송에 필요한 시칠리아를 식민지로 두었다. 즉 식량 확보를 목표로 하여 군사력, 속주, 시민권을 유지하였다.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축은 도시다. 그래서 현재 사는 사회 체제가 맘에 안들면 두 가지를 하면 된다. 첫 째로 도시를 해체하여 소규모 자급자족 생활 공동체로 분산시켜야 한다.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맘 먹고 먹고사는 방식을 바꾸자고 하면 Agent State인 유에스가 가만 두지 않는다. 유에스는 로마가 가진 군사력과 더불어 자본력도 가지고 있다. 맘에 안드는 나라가 있으면 그대로 군사력과 헤지 펀드로 때려 버린다. 결국 US를 없애야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반 자본주의는 반미와 연결된다. 환경운동가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인들이 미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몇 개는 더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쌀 밥 먹던 이들이 보리밥 먹고 살진 못한다. 살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약탈하게 된다.

유에스에서 일할 때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밤새 에어컨을 틀어 놓아서 빌딩 전체가 냉동 창고다. 월마트 같은 곳을 가면 거기는 거의 축구장이다. 거기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보면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압도당한다. 구경꾼들도 압도당하는데 거기서 사는 이들은 완전히 거기에 지배된다. 시차가 세 개나 되는 넓은 US 전역에 밤새 에어컨과 보일러를 켜 놓는다고 생각해봐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러한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 US의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착취하면서 날뛰는 것이다. 한번 그 풍요를 맛본 이들은 절대 그 맛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불법 채류자가 끊임없이 늘어난다. 미국을 움직이는 지식인, 자본가가 바로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 김용욱이 이견희한테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돼"라고 한다고 해서 이견희가 자본을 포기할까?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60년대 체 게바라, 카스트로 등의 제 3세계 해방운동, 운동을 뒷받침하던 중국 등은 굉장히 올바른 패러다임을 갖고 움직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덩소평 이후 사회주의를 포기했다. 결국 목표를 '미국처럼 살아보겠다'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 중국이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로 북한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부시가 되든 케리가 되든 북한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똑같기 때문이다.

답은 하나다. 아무리 큰 건물도 한 구멍이만 무너지면 붕괴해 버린다. 유에스에게 갈썩갈썩 거리면서 귀찮게 하는 티눈 같은 존재인 이란과 북한. 이란과 북한에서 유에스의 영향력에 균열이 보이면 유에스가 붕괴할 가능성이 보인다.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Agent State인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책 몇 권 읽는다고 자본주의가 극복되기는 힘들다.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유에스의 힘이 매우 커져버렸다.

데이비드 하비의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을 한번 보자.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놓고 있는 땅을 도시화 한다. 도시화해야 자본에게는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킨다. 무인 공장, 디지털화, KTX, Internet.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압축할수록 이윤profit이 늘어난다. 즉 자본주의 시스템을 깨기 위해서는 이 압축을 해제시켜야 한다. 도시를 해체해야 하고 느리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국지적 차원에서는 시공간 압축을 극복하고, 자본주의적 세계차원에서는 유에스가 조금 헐벗고 굶주리게 해야 한다.